

 <b>정치하는엄마들</b>	<b>논평</b>		
	보도일시	2018. 10. 25.	
	담당	장하나	010-3693-3971
		조성실	010-4023-0671
배포일시	2018. 10. 25.	총 매 (별첨 1건)	

### [논평]

#### 유치원공공성강화방안 발표에 부쳐

- ▲에듀파인 전면 도입 환영 ▲향후 감사계획 없어 유감 ▲학부모부담금 상한제 도입해야
- ▲나이스(교원인사관리시스템) 도입, 교직원 급여기준 공시로 원장·교직원 고액 연봉 제한해야

□ 오늘(25일) 오전 8시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치원공공성강화방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지 2주 만의 대책발표다. 이에 지난 1년 여간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향후 활동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사립유치원에 온라인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로써 유치원 운영비를 설립자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문제는 대체로 해결되리라 본다. 하지만 에듀파인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에듀파인은 기존 회계장부를 대체하는 온라인회계장부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중 장부 외 비리는 막을 수가 없다. 이중 통장·이중 장부는 경우, 유치원 납품업체를 친인척이 설립하여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납품 비리, 방과 후 특성화교육 외주업체나 납품업체로부터 불법 수수하는 리베이트, 납품업체와 짜고 납품가를 부풀려 계약·지급하고 설립자에게페이백하는 방식 등 에듀파인으로 걸러낼 수 없는 비리 수법이 허다하다. 또한 어제 공개된 지난 5년간의 유치원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 교육청마다 감사 기법과 감사실시 회수·처벌수위가 제각각이다. 즉 시도 교육청의 관리감독 의지가 천차만별이라는 뜻이다. 교육부는 과거 감사내용 공개에 그치지 말고, 향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해야 한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도입된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유치원도 있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감사메뉴얼을 만들어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감사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유치원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